

금타사측 “골든타임 허비 말자” 노조에 촉구

유동성 고갈로 위기를 맞은 금호타이어 사측은 “회사가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노사가 갈등과 반목으로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말자”고 노조에 촉구했다.

금호타이어 백훈선 노사협력담당 상무는 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지금은 노사가 실효성 있는 자구안을 마련하고 건전한 외부 자본 유치와 채권단 지원을 통해서만 회생과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채권단은 이달 말까지 ‘외자유치동의서’를 포함한 ‘자구안’을 제출하지 못하

정상화위해 해외자본 무조건 반대 안돼 현실 직시해 노사협력 해결책 마련해야

며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 이같이 밝혔다.

백 상무는 “금호타이어 문제를 노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 정치권, 채권단도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자력으로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노사는 회사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생존을 위한 실질

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상무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회사는 기존 자구안보다 가혹한 수준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즉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즉시 이뤄지고 만약 회생계획안과 독자 생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

정관리 신청이 거부돼 한진해운과 같이 청산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백 상무는 “해외 자본이라도 건전성이 확인되고 회사를 인수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미래 계속 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해외 자본이라고 100% 찬성은 아니지만, 무조건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매각 때 ▲ 국내·외 공장을 포함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 실행 능력 ▲ 회사 전체 종업원의 고용안정 보장 ▲ 브랜드 가치 제고와 영업·생산에

서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채권단에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지회장들이 벌써 수일째 힘들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전혀 없으며 채권단이 경고한 시한은 하루 하루 다가오며 금호타이어 운명을 옥죄고 있다”며 “자구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와 채권단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마땅하고, 이렇게 해야 지역민과 시장의 신뢰와 지지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미애 기자



농협전남지역본부에서는 최근 장성남면농협 2층 회의실에서 남면 단감 재배농가 150여명을 대상으로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실시했다.

전남농협, 장성 단감 재배농가 조직화 교육

농협전남지역본부에서는 최근 장성남면농협 2층 회의실에서 남면 단감 재배농가 150여명을 대상으로 ‘생산자 조직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젊은층의 수입과일 선호도 증가로 인한 국내 과일의 소비 위축,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은 농산물유통 환경 변화 및 산지 대응

전략과 연계한 농가조직화 필요성과 새 정부 산지조직 육성 정책 방향 설명, 고품질 단감 생산을 위한 기술재배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성군은 900여명 재배농가가, 547ha 과수원에서 6,470여톤의 단감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5년 대한민국과일산업대전에서 최우수 단감으로 선정돼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서미애 기자

aT, 미국 내추럴프로덕트엑스포서 건강식 홍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병호)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애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내추럴·건강제품 전문박람회인 ‘2018 Natural Products Expo West (NPEW 2018)’에 참가했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약 124개 국가의 3,100여 업체, 8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제품 박람회로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내추럴 제품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aT는 미국 주류시장 개척을 위해 쌀제품, 스낵류, 소스류, 차류, 음료류, 신선류, 홍삼류, 건강식품 등 전반적인 건강

및 내추럴식품군을 갖춘 24개 업체가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했다.

또 aT 홍보관을 활용해 24개 수출업체 제품을 집중 홍보하는 것과 더불어 통관 전문가와의 상담 시간을 마련해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의 미국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aT 백진석 수출이사는 “미국 내 에스닉 식품 수요증가로 한국식품의 주류시장 진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해 대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했다”며 “미국에서 내추럴식품이 핵심시장으로 자리 잡고있는 만큼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미국 주류시장에 한국식품의 건강 지향적인 이미지를 확립하고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형동 기자



브랜드 체험관인 서울 압구정동 비트 360에서 열린 ‘올 뉴 K3’ 1호차 전달식.

기아차 ‘올 뉴 K3’ 1호차 전달

기아자동차는 브랜드 체험관인 서울 압구정동 비트 360에서 ‘올 뉴 K3’ 1호차 전달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올 뉴 K3 1호차 주인공으로는 미술과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정은욱씨(43)가 선정됐다.

기아차는 정 씨에게 200만원 상당의 주요 상품권을 증정했다. 회사 관계자는 “올 뉴 K3는 경제성과 세련된 디자인 등을 고루 갖춘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6년 만의 완전 변경(플랫폼) 모델인 올 뉴 K3는 차세대 파워트레인(엔진

·변속기 등 동력전달체계)을 처음으로 장착했다.

앞차와 간격이 좁혀질 경우 차가 알아서 스스로 멈추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를 기본 장착했다. 옵션(선택 사양)으로 지능형 안전 기술 브랜드인 ‘드라이브 와이즈’ 등도 선택할 수 있다.

기아차는 전국 주요 지역에 올 뉴 K3 체험존을 조성하고 현장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미애 기자

대우전자-대우위니아, 중국 시장 진출

상해 가전박람회 참가...사천성 등 신규거래 확대

대우전자가 대우위니아와 함께 중국 프리미엄 가전 시장 공략에 나선다.

최근 대우그룹의 계열사가 된 대우전자는 기존 대우위니아가 보유한 기존 중국 유통망을 활용, 전체 판매 매출을 전년 대비 20% 이상 늘리며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12일 대우전자에 따르면 지난 8일-11일 진행된 중국 ‘2018 상해가전박람회(AWE·Appliance & Electronics World Expo)’에 대우위니아와 공동관을 마련했다. 대우그룹의 새 가족이 된 이후 첫 해외 전시회에 동반 참가한 것.

대우전자는 상해가전박람회에서 대형

3도어 냉장고, 18kg 대용량 공기방울 세탁기, 클래식 냉장고, 벽걸이 드럼세탁기 등 60여종의 프리미엄 가전을 선보였다.

또 대우위니아는 대형 냉장고 프라이드를 비롯 담체 김치냉장고, 담체국 밥솥, 위니아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신제품을 함께 전시했다.

대우전자는 중국 샴스클럽과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 1만5,000대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아울러 대우위니아 신제품을 함께 출품하는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우전자 전시관은 중국가전협회로부터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 제품의 혁신

성을 인정받아 ‘주목받는 전시관’으로 선정됐다.

대우전자(옛 동부대우전자)는 2013년 중국 진출 이후 각 성의 성도(首都)와 상업 중심지를 중심으로 단독 매장을 운영중이다.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사천성, 호남성, 호북성 등 중서부 지역 대형 양면전 신규 진출을 확정했다.

이종훈 대우전자 중국영업담당장은 “상해가전박람회 참가와 비즈니스쇼케이스를 통해 중국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본격화 할 것”이라며 “대우위니아와 협업해 해외 유통망 확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주말에 선생님이 찾아와요”

삼성전자, 삼성드림클래스 주말교실 개강

교육 여건이 부족한 중학생에게 대학생 강사들이 학습을 지원하는 삼성전자의 교육 사회공헌 사업인 ‘삼성드림클래스’가 주중·주말교실을 개강한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삼성드림클래스는 배우던 중학생이 가르치는 대학생 교사

로도 참여하는 선순환 사회공헌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12일부터 전국 38개 시·군 188개 중학교에서 중학생 7,000명 대상 ‘삼성드림클래스 주중·주말교실’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지난 7년간 삼성드

림클래스에는 총 중학생 6만5,000여명, 대학생 1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 주중교실은 대학생 강사가 중학교를 찾아가 방과후 보충 학습을 지도하는 것으로 대도시 위주로 진행되며, 대학생 강사가 매일 찾아가기 어려운 중소도시에서는 주말교실이 운영된다. 이번 ‘주중·주말교실’은 내년 2월까지 운영되며, 1,650명의 대학생 강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서미애 기자

소상인 ‘일과 삶 균형도’ 42점

‘경기침체’ 가장 큰 위협 요소

소상인이 느끼는 일과 삶의 균형 점수가 40점대에 그치는 등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소상인 일과 삶의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12월 자동차·부품판매업,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4개 업종 5인 미만 소상인 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년 전과 비교해 일과 삶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는 ‘변화

없다’는 응답이 67.1%로 가장 높아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29.1%에 달했고, ‘좋아졌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협하는 요소(복수응답)로는 내수불안 등 경기침체(72.9%)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여유 부족(60.4%), 오랜 노동시간(37.1%)순으로 나타났다.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사회안전망 확대(48.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사업영역 보호(43.9%), 사업 활성화 지원(38.1%), 노동 시간 단축 지원(28.7%)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 근무시간이 10.9시간으로 개인 생활시간(1.4시간)의 7.8배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소상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일과 삶의 균형도(100점 만점, 높을수록 균형적)는 41.8점에 불과했다.

40세 미만은 48.4점이었으나 60대 이상은 38.4점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일과 삶 균형도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소상인들이 희망하는 노동 시간은 평균 8.3시간으로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2.6시간 짧았다.

반면 희망하는 개인생활 시간은 평균 3.1시간으로 실제 개인생활 시간보다 1.7시간 길었다. /유형동 기자

주목! 이사람



박태선 농협 전남본부장은 13일 전남도청에서 열리는 ‘광주·전남 통합 방위회의’

에 참석한다.



김일수 농협 광주본부장은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제 58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한다.

농식품부, 코리아 푸드컵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목, 이하 농식품부)는 13일부터 푸드테크 스타트업 공모전인 ‘2018 코리아 푸드컵(Korea FoodTech Challenge UP)’을 개최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외식, 식품 분야에 IC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 코리아 푸드컵’은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한다.

대회는 예선 서류·발표심사 및 최종결선 순으로 진행되며, 최우수 2팀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장관상이 수여되고, 결선 진출 4개팀에게는 상장, 상금 및 입주공간, 투자연계 등의 후속지원이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식품, 외식 관련 서비스업에 ICT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분야의 예비창업자(팀) 또는 3년 이내(2015년 1월1일 이후) 초기창업자(팀)이며, 신청기간은 13일부터 오는 4월4일까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및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공모전 홍보를 위해 이달 26일 서울에 위치한 ‘마루180’에서 푸드테크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푸드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케이뱅크, 위메프서 금리우대

케이뱅크는 25일까지 위메프에서 ‘코드K·적금’ 금리우대 코드 발급 이벤트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위메프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케이뱅크’를 검색해 신청하면 무료로 금리우대 코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케이뱅크에서 ‘코드K 정기예금’이나 ‘코드K 자유적금’에 가입하면서 받은 코드를 입력하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정기예금은 1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으며 금리우대 코드 입력 시 가입 기간에 따라 1년은 연 2.3%, 2년은 연 2.35%, 3년은 연 2.4%의 금리를 받게 된다.

적금은 월 최대 30만원, 3계좌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1~3년)에 따라 연 2.5~2.7%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 건치 할인 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치아가 건강한 고객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치아보험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임플란트, 틀니 등 보철 치료와 크라운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약으로 보장금액을 추가할 수 있게 설계됐다.

특히 ‘진단형’ 상품의 경우 고객 연령대에 맞는 건강한 자연치아 개수를 보유한 것이 파노라마 촬영심사와 의사 소견서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최대 30~40% 할인해준다.

또 진단형은 90일간의 면책 기간이 없어 가입 즉시 보험사고 발생하면 보험금을 100% 준다.